

▶ 매일 INDEX



3면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음 10월 25일) 제2675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습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 “공수처법 개정만이 답”

민주당 도내 의원 성명

“권력기관들 권한 분산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리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

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율러,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검찰은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은 전주갑 김운덕,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홍,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원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공무원노조연맹·전공노전북본부·전라북도공무원노조는 8일 전북단위 단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도-도내 전 공무원노조, 도정발전 ‘맞손’

### 전국최초 광역단위 단체협약

### 7개월 만에 단체교섭의 결실

전북도와 전북공무원노조연맹·전공노전북본부·전북도공무원노조간 전북단위 단체협약이 8일 체결됐다.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5월 20일 양측 교섭위원 상견례를 한 지 7개월 만에 단체교섭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이날 체결은 도내 공무원노동조합 15곳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단체 내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아우르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안남규 전북연맹위원장, 신윤철 전공노전북본부장, 김형국 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양측 대표교섭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전북도내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조합활동 등에 관한 총 4개 항향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도·시군 공무원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상생하고 나아가 도민을 위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협의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비범직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세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안남규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고 도시군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내년 中企 핵심전략 ‘코로나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1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경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32.8% ▲부정적 65.8%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이 커진 민족,

2021년 중소기업 핵심 경영전략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5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42.4%) ▲신규거래처·판로 발굴(3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보통 32.8% ▲부정적

65.8%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이 커진 민족,

1곳도 되지 않은 수준(7.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반적 경영실적은 평균 68.8 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6.2점)이 제조업(71.5점)보다 다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용했던 정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45.4%) ▲세금 및 4대보험 등 감면·납부유예(35.2%) ▲중소기업 대출 확대·민기연장(32.0%) ▲고용유지지원금(30.4%)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 전북대병원, 폐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 개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비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폐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진행된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체한정 폐질

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관계내빈의 축사가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통해 송출되는 바이브 방식으로 이뤄졌다.

체한정 센터장은 “우수한 인적 인프

리를 바탕으로 폐질환 관련 치료제 및 신약 물질 개발 등 연구에 수준 높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신선이 마시는  
천상의 다섯가지 맛!

오미자!

명품 오미자 와인과 함께  
품격 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www.jangsumall.com  
장수몰 MALL  
NAVER

장수군청 검색

Tel. 063)350-5448